

간의 담관암에서 경유두 조직생검과 담즙세포진 병합검사의 유용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승우*, 송시영, 정재복, 문영명, 강진경, 박인서

간의 담관암의 조직학적 확진은 치료 방법의 선택과 예후 및 임상경과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나 담관의 해부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조직을 얻기가 쉽지 않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시 경유두 조직생검, 담즙 세포진 검사 또는 경피경간 경로를 통한 담즙 세포진 검사 등을 비롯하여 경구적 담관 내시경, 경피경간 담관 내시경, 경피 세침흡인생검 등이 조직 진단에 이용되고 있으나 검사방법 및 보고자에 따라 성적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검사는 시술의 침습성과 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의치 못한 경우도 있다. 연자 등은 간의 담관암 환자에서 ERCP 시술 중 시행한 경유두 조직생검과 담즙세포진 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1991년 8월부터 1996년 2월까지 간의 담관암 40예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최종진단은 '수술을 통한 병리조건 또는 최소한 1년 이상 경과를 관찰하여 임상적인 확진을 하였다'.

1. 대상환자 40예의 평균 연령은 $61.7 \pm 11.5(31-82)$ 세였으며 남녀 비는 1.9:1이었다.
2. 경유두 조직생검을 실시한 병변의 위치는 담관 상부 25예, 담관 중부 14예, 담관 하부 1예였으며, 담즙 세포진 검사는 28예에서 시행하였는데 상부 담관암 17예, 중부 담관암 11예였다.
3. 경유두 조직생검의 전체적인 민감도는 65.0%(26/40)였는데,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담관 상부 68.0%(17/25), 담관 중부 64.3%(9/14), 담관 하부 0%(0/1)였으며, 병변의 형태에 따라 협착형 65.6%(11/32), 유두형 60.0%(3/5), 돌출형 66.7%(2/3)였다.
4. 담즙세포진 검사의 전체적인 민감도는 71.4%(20/28)였는데,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담관 상부 82.4%(14/17), 담관 중부 54.5%(6/11)였으며, 병변의 형태에 따라 협착형 80.0%(16/20), 유두형 20%(1/5), 돌출형 100%(3/3)였다.
5. 경유두 조직생검과 담즙세포진 검사가 함께 시행되었던 28예에서 두 가지 검사를 병합하면 민감도는 96.4%(27/28)였다.

이상의 결과로 간의 담관암의 조직학적 진단에 있어서 경유두 조직생검과 담즙세포진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진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담관협착 질환에서 담즙에 대한 K-ras 점 돌연변이와 담관세포세포진 검사의 진단적 효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생명과학연구원 소화기센터*

박상현[†], 진영주, 임창영, 송일한, 김정원, 노임환, 이학성[†], 이종학[†]

목적: ras의 점 돌연변이는 인체내 여러 종양에 20-40%정도 관여하고 있고 췌장암에서는 80-90%이상 관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담관은 췌장과 발생학적으로 같은 전장에서 기원하고 있으나 담관암에 대한 K-ras 돌연변이의 존재유무는 췌장암과는 달리 빈도가 낮고 특히 학자마다 자기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매우 높다. 또한 기존의 보고들은 담관암의 조직에 대해 k-ras 돌연변이를 연구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담즙에 대한 k-ras 돌연변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담관에 대한 세포세포진 검사는 예민도는 비교적 낮으나 높은 특이도 때문에 감별이 어려운 담관협착 질환의 진단에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 및 악성 담관협착의 감별을 위한 담즙에서의 K-ras 돌연변이와 세포세포진검사의 진단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4년 5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수술 혹은 조직검사를 통해 확인된 24예의 담관암과 담관조영술 및 추적 관찰 혹은 수술에 의해 확인된 15예의 양성 담관협착(담관담석증 7예, 만성췌장염 8예)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에서 ERCP를 시행하여 협착 담관 부위에 대해 세포세포진 검사를 하였고, 비-담도배액관 혹은 경피경간배액관을 통해 2-3일이 지나 뒤에 담즙을 채취하여 RFLP-PCR 방법에 의해 K-ras 돌연변이를 조사하였다. 결과: 담관암에 대한 담즙 K-ras 돌연변이 양성율은 66.7%(16/24)였고, 세포세포진검사의 양성검사 양성율도 66.7%(16/24)였다. 양성 담관협착 질환에서는 15예중 1예(6.7%)에 석인 K-ras 돌연변이를 보였다. 담관암에 대한 각 검사방법의 진단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K-ras mutation	Brushing cytology	K-ras mutation+Brushing cytology
n	39	39	39
Sensitivity	66.7%	66.7%	83.3%
Specificity	93.3%	100%	100%
PPV	94.3%	100%	100%
NPV	63.6%	65.2%	95.2%
Accuracy	76.9%	79.5%	87.2%

* All results were not significant among 3 groups

결론: 악성 담도협착의 70%에서 K-ras 점 돌연변이 및 세포 세포진검사가 양성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k-ras 돌연변이의 세포 세포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면 양성률과 감별이 어려운 악성 담도협착의 진단에 있어서 민감도와 진단의 정확도를 세포 세포진 단독검사에 비해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